

대선후보 당선가능성 이재명 47.0%·윤석열 42.5%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
전국 3013명 대상 설문조사

지도도 이 39.4%·윤 39.5%
65.8% “박근혜 사면 잘됐다”

차기 대선후보 지도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9.5%로 초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충청권, 제주에서는 이 후보가, 영남에서는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47.0%로 윤석열 후보(42.5%)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잘함’ (40.6%)보다 ‘잘 못함’ (57.1%)이 더 많았다.

◇차기 대선 후보 지도도=30일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임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조원씨앤이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차기대선 후보 지도도를 윤석열 후보 39.5%, 이재명 후보 39.4%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3%, 정의당 심상정 후보 3.4%,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1.1%, 새로운미래 김동연 0.9%, 그 외 다른인물 2.5%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6.7%를 기록했고, 윤석열 후보도 19.7%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었다.

이재명 후보는 광주·전남 이외에도 전북(60.8%)과 대전·세종·충청(42.5%), 제주(48.1%)에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윤석열 후보는 대구·경북(53.9%), 부산·울산·경남(45.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이재명 후보 37.2%·윤석열 후보 40.7%)과 인천·

경기(이 후보 40.8%·윤 후보 37.8%)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에서는 윤석열 후보(44.3%)와 이재명 후보(43.3%)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지도도=이번 조사에서 정당지도는 국민의힘이 35.3%, 더불어민주당 30.6%, 국민의당 7.6%,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4.1%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은 2.5%, 무당층 14.0%(없음 13.0%·잘 모름 1.0%)였다.

국민의힘은 서울(37.8%)과 부산·울산·경남(43.3%), 대구·경북(50.7%), 강원(32.6%), 제주(38.5%)에서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당은 광주·전남(46.8%), 전북(54.3%)에서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높았고, 인천·경기(민주 32.4%·국민의힘 32.9%)와 대전·세종·충청(민주 31.9%·국민의힘 30.9%)에서는 양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 40대(40.0%)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36.4%), 60세 이상(45.1%)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조사에서는 잘못함이 57.1%로, 잘하고 있다(40.6%)는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호남(전북 61.9%, 광주·전남 60.4%)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40대(54.2%)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의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관련, 박근혜 사면 문제=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선 후보 가족문제가 후보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53.6%(매우 24.5%·어느 정도 2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44.0%(매우 22.8%·어느 정도 21.2%)로 국민 절반 이상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 ‘지방을 잘 살릴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40.2%, 윤석열 후보가 36.8%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위치한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방문해 경비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범위 내에서 이 후보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잘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65.8%)은 ‘잘된 결정’이라 응답했고, ‘잘못된 결정’은 25.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국 3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이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1.8%포인트이다. 전국을 대표하는 9개 지방 신문사들이 국내를 9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이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설문 결과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다자대결 이재명 39%·윤석열 28%

NBS 여론조사... 정권심판론 40% 국정안정론 45%

다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에서 하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양당 대진표가 확정된 11월 1주차 조사 이후 처음으로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정권심판론’ (정권교체론)과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 (정권유지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정권심판론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엔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글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대표 조사(NBS) 4자 가상대결에서 이 후보는 39%, 윤 후보는 28%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1%포인트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6%,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5%로 뒤를 이었다. ‘태도 유보’ 답변도 1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윤 후보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윤 후보는 전주 조사에선 서울에서 37%로 집계, 이 후보(31%)를 6%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선 전주보다 11%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해 이 후보(36%)에 10%포인트 차로 뒤졌다.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도는 서울에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해 36%로 나타났다. 또한 이 후보는 서울, 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윤 후보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에서 이 후보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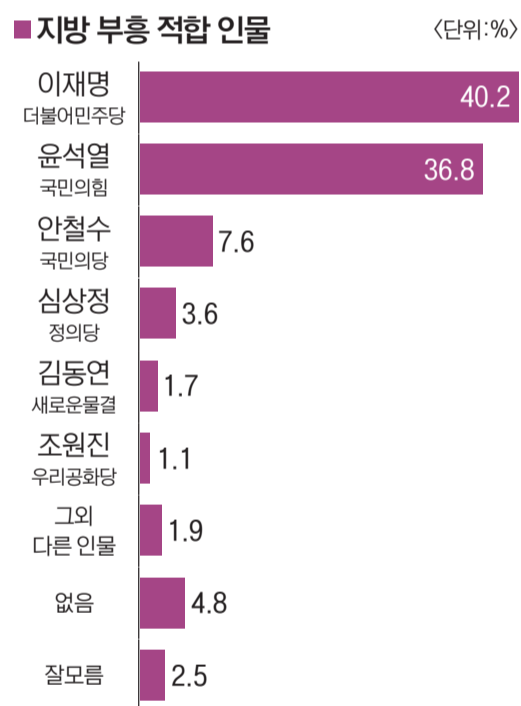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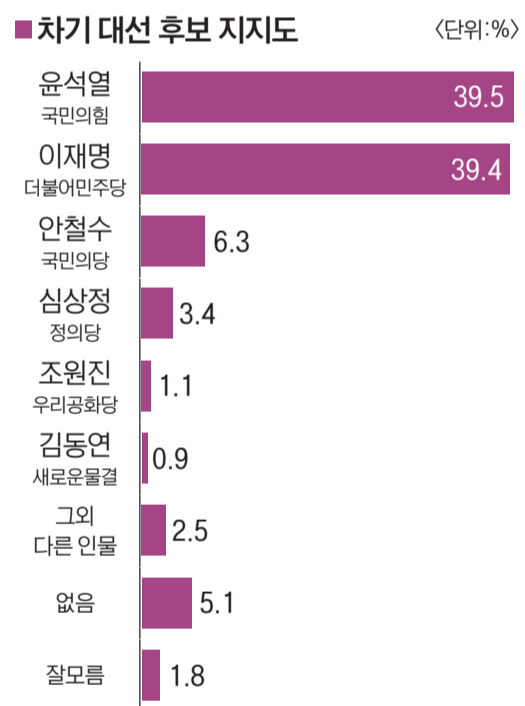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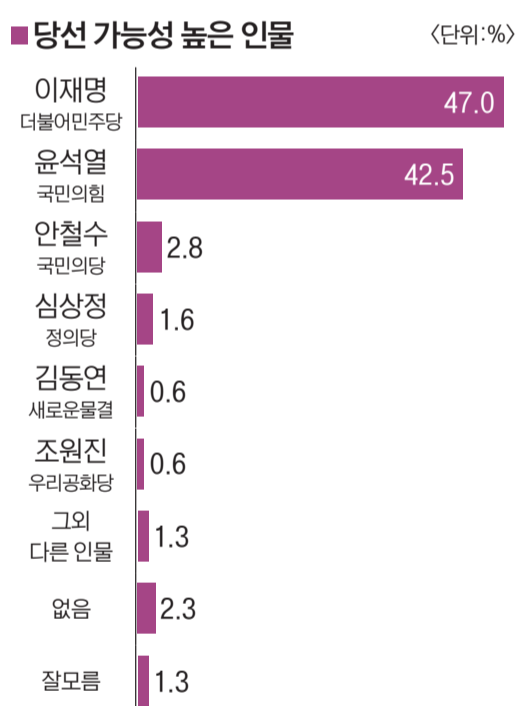
이 후보 지지층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39%)을, 윤 후보 지지층은 ‘정권교체’(75%)를 각각 지지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국정안정론은 45%,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은 40%로 각각 집계됐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 ‘이재명 대 윤석열’의 본선 대결 구도가 확정된 11월 첫째주 이후 처음으로 정권심판론이 국정안정론 보다 낮게 나온 셈이다. 국정안정론은 전주(42%)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정권심판론은 전주(42%)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전주에는 동물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정안정론이 더 높게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0%,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4%, 태도 유보 21%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에서 하반기 이후 가장 높은 정당 지지도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1월 2주차 윤 후보 선출 직후 하반기 최고치(39%)를 찍었다가, 12월 4주차 28%로 후보 선출 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이번 조사에서 소폭 상승했다.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가 46%, 윤 후보가 3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8.3%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우체원고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형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